

(주)대원바텍 기업 연혁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7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전형진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큰누나가 거주하던 군산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군산 시장에서 감 장사를 시작으로 사업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주유소 운영과 건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74 년 4 월 20 일, 군산시 경장동 509-6 번지에 위치한 벽돌공장을 인수하면서 '대원기공사'를 설립하였고, 시멘트 벽돌 및 속 빈 블록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주)대원산업 구 경장동 공장

이 시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향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으며, 새마을운동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사회적 동력이자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부는 건축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하고,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초가집과 흙벽이 허물어지고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블록 주택이 세워졌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은 대원기공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74 년은 경제개발 3 차 5 개년 계획(1972~1976)의 중반기로, 건축자재의 규격화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KS 인증 제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대원기공사는 이 흐름에

발맞추어 유압식 콘크리트 제품 성형기와 증기 양생시설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 강도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시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은 곧 매출로 이어졌고, 1982년 2월 11일 '대원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지역 최초로 KS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후 대원산업은 제품군을 확장하여 보도용 블록, 시멘트 기와 등 다양한 건축용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며 입지를 다져 나갔다. 1980년대 중반, 정부는 어촌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이에 따라 대원산업은 1984년 4월 30일 인공 어초 생산을 개시하여 바다목장 건설을 통한 수산 자원 조성 and 해양 생태계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회사의 성장에 따라 1987년 7월 11일 대원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급증하였고, 군산 지역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원산업 역시 일시적인 조업 중단을 겪었으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사내 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내 안정된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1989년,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나섰다. 대원산업은 이에 맞춰 군산 일반산업단지에 11,347 m²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8월 18일 건물 기초용 PC 파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 생산을 시작하였다.

토목용 콘크리트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990년 5월 20일 서수면 축동리에 '㈜대원콘크리트'를 설립하고, 1992년 4월 1일부터 콘크리트 흙관 생산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는 수로관 및 벤치플룸관을 생산하며 호남평야의 농지개량 사업에 기여하였다.

1993년 10월 30일에는 레미콘 생산을 본격화하였고, 1996년 5월 25일부터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종합 콘크리트 제품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레미콘 운송에는 군산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대우 상용차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게차, 휠로더 등 중장비 역시 ‘메이드 인 군산’ 제품을 우선 도입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초기술기업"이라는 기업 철학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1997 년 외환위기는 대원산업에도 시련을 안겨주었다. 지역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에 따라 어음으로 수취한 매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급등한 대출금리와 신용경색, 침체된 건설시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임직원들의 결속력은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으며, 대원산업은 다시금 회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2004 년 5 월 1 일, 대원산업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총 37,648 m²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고강도파일 생산을 위한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이후 ‘(주)대원바텍’으로 법인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해공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태국 등지에서 석고 원석을 수입·가공해 고강도 콘크리트 혼합재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대원바텍 고강도파일 생산공장(군산국가공단)